

지역 매 아리

김제 보건소 정신건강상담 진행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조기대응을 통한 만성화 방지 등을 목표로 하여 2018년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마음의 창문을 여세요.' 를 지난달 넷째 주 금요일, 만경읍, 백산면, 검산동에서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은 낮은 행복지수, 높은 스트레스, 약한 사회적 지지체계 등으로 발생하는 정신건강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증가로 국민 4명 중 1명(25%)은 전 생애에 걸쳐 한번 이상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김제시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만성화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학교4-H지도교사 협의회

완주군이 농촌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4-H 지도교사 협의회를 개최하고, 1년의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9일 완주군은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최근 '2018년도 학교4-H 지도교사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학교 4-H 지도교사 협의회는 완주군 중·고교 총 6개 학교(고산중, 봉서중, 삼례중, 삼우중, 운주중, 고산고)의 4-H 교사(8명)들로 구성된 단체다.

과제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4-H 이념인 '지(智)·덕(德)·노(勞)·체(體)'를 실천하고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동진 농어촌공 농지연금사업 호응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병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사업이 어려운 농업 현실속에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자식들에게도 부모 병양의 짐을 덜어줄 수 있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고령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연금은 100세 시대 고령화로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농촌사회의 불안 해소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지난 2010년부터 제도 도입을 통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매월 지급해 주면서 농업인들로부터 효자사업으로 2018년부터는 고령농업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신상품(전후추박형,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을 출시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버섯재배로 웃음꽃 '활짝'

완주군, 용진 원주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3개 단지 표고버섯 재배

"버섯 키우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아파트공동체 사업으로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완주군 용진읍 원주아파트, 원주아파트 주민들은 매일같이 지하를 내려가 보는 것이 일상이 됐다.

20평 규모의 지하 빈 공간에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것. 수시로 물을 뿌리고 환기는 잘되는지, 온도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주민들의 일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이 사업으로 주민들끼리 공감대가 생겨 대화거리도 많아졌다.

"오늘 버섯이 훨씬 더 자랐더라고요.", "버섯 싹이 나온 게 옛것때 커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해요."

버섯으로 시작된 소통의 공감대는 이웃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현재 완주군에서 원주아파트처럼 아파트 빈 공간을 활용해 친환경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곳은 총 3개 단지다.

원주아파트를 포함해 삼례읍 등 원주아파트, 이서면의 하늘가 아파트다.

이들 아파트들끼리도 버섯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수시로 연락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완주군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경부터 입주자



완주군 용진읍 원주아파트 주민들은 20평 규모의 지하 빈 공간에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대표,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대표들 30여명과 함께 정읍시 삼화타운 아파트를 방문해 표고재배 현장을 체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이후 올해 지하 빈 공간(20평 규모)에 LED등을 설치하고 앵글과 선반을 이용해 버섯 선반을 만든 후 표고버섯 배지를 놓았다.

버섯의 재배관리는 주민들의 몫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급수, 환기, 온도 등을 체크해 버섯을 생산한다.

버섯배지는 3~4번의 수확이 가능하며, 수확이 끝난 배지는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준세 이서면 하늘가아파트 공동체 대표는 "이번 사업으로 소소한 일거리가 생겨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신다"며 "버섯 키우는 것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고, 처음이지만 정성껏 키워 이웃과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아파트 르네상스가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뿐 아니라 어르신이나 주부들에게 소소한 일거리를 제공해 아파트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 상하수도과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1000여 평 사과농장 봉사활동

김제시 상하수도과(과장 선강식) 직원 20여명은 지난 8일 황산동 덕조마을에 있는 한 과수농가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봄철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참여한 직원들은 1,000여 평 규모의 사과농장에서 사과를 수확하는 작업을 실시하며 농가와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도움을 받은 농가에서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고령화현상으로 일손이 부족해 요즘 농촌은 적기영농에 어려움이 많으며 더욱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바쁜 업무 중에도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 일손을 덜어주어 더없이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선강식 상하수도과장은 "일손부족으로 시름하고 있는 농가에 직원들의 힘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농업의 소중함과 농가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관내 학교 찾아가는 교육 진행

장애발생예방·인식개선 병행

완주군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실시, 장애 인식을 개선하고 사고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9일 완주군 보건소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발생 예방(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예방교육은 장애인의 장애인인의 대부분이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됨에 따라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실시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교육은 국립재활원에서 실제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은 장애인 강사를 파견해 강사의 실제사고 사례 소개 및 장애예방을 위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 기르기,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사고발생 예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완주군보건소는 이번 교육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았으며, 올해는 6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총12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및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농어촌공사 조익문 감사 새만금 사업현장서 청렴교육

한국농어촌공사 조익문 감사는 새만금 현안업무 공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9일 새만금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조익문 감사는 신시33센터에서 새만금사업단(단장 심현삼), 금강사업단(단장 정낙교),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단장 임우순) 등 3개 사업단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단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항을 보고 받

고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조익문 감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이슈화된 청탁금지법, 미투 운동, 갑질 문화 등 사례를 설명하며 간부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청렴을 생활화하여 깨끗한 회사 풍토 만들기에 전사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혁신행정 우수 지자체 수상

독거어르신 복지패트를 추진 시민 공감 얻어

김제시(시장권한대행 이우천)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공동체 분야 우수사례 추진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수사례의 발굴과 확산에 중점을 두고 인권, 사회통합, 공동체, 상생협력, 시민참여 등 5개 사회적 가치 분야에 걸쳐 심사가 진행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국 지자체에서 응모한 240여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하여 38개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례를 최종 확정했다.

김제시는 그간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김제시, 우체국, 한전, 읍면동, 복지기동대 등 지역 사회의 각 주체들이 연계 협력 방식으로 참여하여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촘촘한 복지

행정을 추진하여 왔고 이에 따라 협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와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향상한 것을 인정받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이후전 김제시장 권한대행은"정부 혁신의 본격화에 따라 정책 전반에 걸쳐 경쟁과 효율에서 사회적 가치로 무게 중심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시민이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소중심사의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Jin'an Gao-won' (진안고원) medicinal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bowl of ginseng and other ingredients, with two bottles of the wine in the foreground. Text includes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Korea's Ginseng Special District Jin'an Gao-won),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World Liquor Tasting Competition Gold Medal), and '真心 홍삼주' (Sincere Heart Ginseng Wine). Logos for '진안고원' and '진안군' are also present.